

유창식, 고향팀서 '이적생 신화' 쓸까



한화와 전격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된 유창식. /연합뉴스

KIA-한화 3:4 트레이드 단행



KIA, 임준섭·박성호·이종환 보내고 투수 유창식·김광수 영입 오준혁·노수광, 군필 매력...외야수 확보로 운용의 폭 넓혀 나지완 2군 보내며 '기본' 강조...김다원·차일목도 2군행

'명가 재건'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KIA 김기태 감독이 칼을 빼어들었다. 6일 한화와 3:4 트레이드를 감행한 김 감독은 나지완·차일목·김다원을 2군으로 내리며 엔트리를 대거 교체했다.

◇임준섭과 유창식, 좌완 맞교환
KIA는 6일 한화와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좌완 임준섭(26)과 장신의 우완 박성호(29), 좌타자 이종환(29)을 내주고 좌완 유창식(23), 우완 베테랑 김광수(34), 외야의 젊은 피 오준혁(23)과 노수광(25)을 받아오는 3:4 트레이드였다.
트레이드의 핵심은 임준섭과 유창식이다. KIA 입장에서는 미완의 대기 유창식을 통해 미래에 힘을 보태고, 한화 입장에서는 임준섭으로 현재를 강화한 셈이다.
광주이고 출신의 유창식은 지난 2011년 계약금 7억에 한화 유니폼을 입은 특급 유망주다. '리틀 류현진'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난 시즌이지만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춘, 선발 자원이다. 김광수는 김기태 감독이 LG 2군 감독 시절 지켜본 16년차의

선수. 순천 출신의 오준혁과 노수광으로 외야의 자원도 다양화했다. 특히 군미필 선수가 많은 KIA 입장에는 오준혁과 노수광의 군복무 경력이 반갑다.
한화는 선발과 불펜 모두 경험이 있는 '마당쇠' 임준섭을 영입하면서 초반 돌풍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2010년 한화에서 KIA로 유니폼을 바꿔입었던 박성호도 이번 트레이드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방이 있는 이종환도 고향팀에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살게 됐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KIA와 2015시즌 돌풍의 핵 한화 모두 원원 트레이드다.
◇기본을 강조한 나지완 2군행
김기태 감독은 6일 외야수 나지완·김다원과 포수 차일목을 2군으로 내리고 투수 임준혁, 내야수 김민우·최병연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나지완의 2군행을 결정한 김기태 감독, 인내심을 자극한 것은 '기본'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4번 타자 나지완의 극심한 타격 부진 앞에서 '100타석'을 약속하며 믿음을

보여주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부족했던 나지완의 수비에 대해서도 "수비 문제는 능력이다.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5일 나지완의 수비가 결정적이었다. 이날 NC와의 원정경기에서 2-2로 맞선 4회, 좌익수로 출전한 나지완이 이호준의 평범한 플라이 타구를 잡지 못하면서 2루타를 만들어냈다. 공을 쫓다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의 방향을 놓치면서 제 자리에서 발을 굴러던 나지완 뒤로 공이 떨어지던 상황이었다. 선수들의 실수에 내색을 잘 하지 않는 김기태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정도로 실력이 아닌 기본이 부족했던 플레이였다. 결국 김기태 감독은 이날 부족한 플레이를 보여준 차일목, 김다원도 동시에 2군으로 내리며 선수단에 엄중 경고를 했다.
KIA에게 2015시즌은 명가재건의 원년이다. 약한 전력에서도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이 미래를 다지기 위한 강수를 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화행 임준섭

"KIA서 뛰었던 건 행운...좋은 기억 안고 갑니다"



고,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느라 잠이 깬다. 어리둥절해 하고 있던 임준섭은 이내 매니저를 통해 정식으로 트레이드 내용을 통보받았다.
임준섭은 "한 번도 트레이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고, KIA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 룸메이트인 (한)승혁이도 놀라서 '무슨 일이고 왜 가느냐'고 말을 하더라.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저를 있게 한 고마운 팀입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좌완 임준섭이 KIA가 아닌 한화의 투수로 살게 됐다. 임준섭은 6일 한화와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던 임준섭의 하루를 깨운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화 한통이었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2군에서 먼저 트레이드 내용이 통보됐고,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느라 잠이 깬다. 어리둥절해 하고 있던 임준섭은 이내 매니저를 통해 정식으로 트레이드 내용을 통보받았다.
임준섭은 "한 번도 트레이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고, KIA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 룸메이트인 (한)승혁이도 놀라서 '무슨 일이고 왜 가느냐'고 말을 하더라.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전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버스에 올라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멍하게 반나절을 보냈다.
임준섭은 "KIA와 광주에 정이 많이 들었다. 좋은 기억도 많다.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화에 친한 선수가 없는데 그래도 (승)은 밤이 형이 있어서 다행이다. 정든 곳을 떠나게 돼서 아쉽지만 감사한 마음, 좋은 기억을 안고 가겠다. 그동안 많은 사랑 성원 보내주신 KIA 팬들과 동료,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임준섭은 KIA로 온 것이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1년 여를 쉬어갔지만 차분하게 재활을 끝낸 뒤 많은 기회를 얻었고, 선발과 계투진으로 뛰면서 자신의 위치를 넓혀갈 수 있었다.
자신을 있게 한 제 2의 고향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된 임준섭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화의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임준섭은 "내가 프로에서 첫 승을 거뒀던 팀이 한화인데 인연이 이렇게 됐다.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야구를 하게 됐지만 그만큼 나를 필요로하고 인정해 주신 거라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경기를 뛰는 게 중요한 것이다. 많은 경기에 나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英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리버풀 이어 토트넘도 영입 관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공격수 손흥민(23) 영입전에 나섰다.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는 5일(현지시간) 공격진 재편을 원하는 토트넘이 손흥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해에도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토트넘이 책정한 이적료는 2000만 파운드(약 3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에는 로베르토 솔다도와 에마누엘 아데바요르, 에릭 라멜라 등 공격자들이 포진해 있지만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토트넘이 지난 2013년 2580만 파운드(442억원)를 투자해 발렌시아에서 영입한 솔다도는 몸값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지

난달 이적료 1000만~1500만 파운드(약 163억~245억원)대의 선수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외에도 피오렌티나에 임대된 모하메드 살라(첼시)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첼시가 살라의 이적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 영입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손흥민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몸값도 뛰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에 나섰다 밝혔다. 리버풀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지난 2013년 이전부터 손흥민에게 관심을 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팀내 최다득점 공동 선두로 정규리그 11골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또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 등 이번 시즌 총 17골을 몰아넣었다.
/연합뉴스



추신수, 5경기 연속 2루타

휴스턴전 텍사스 7-1 승리 발판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연속 2루타를 쳐내며 부진 탈출을 알렸다.
추신수는 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타자·우익수로 선발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두 경기 연속 3루타로 나선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쳤다. 2일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시작한 2루타 행진이 5경기째 이어졌다. 추신수는 휴스턴 오른손 선발 스콧 필드먼의 시속 146km짜리 싱킹 패스트볼을 밀어쳤고 타구는 좌중간을 갈랐다.
단숨에 득점권에 진입한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투수 앞 번트안타 때 3루를 밟고, 프린스 필더의 좌익수 쪽 2루타로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의 시즌 7번째 득점이다. 하지만 추신수는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작성에 실패했다. 2회 2루수 직선타에 그쳤고 4회에는 휴스턴 왼손 불펜 케빈 채프먼의 146km짜리 투심 패스트볼에 배트를 휘둘러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6회에도 2루 땅볼로 물러났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완 사이드암 조 대처에게 3구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의 2루타로 포문을 연 텍사스는 1회초에만 4점을 뽐으며 7-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